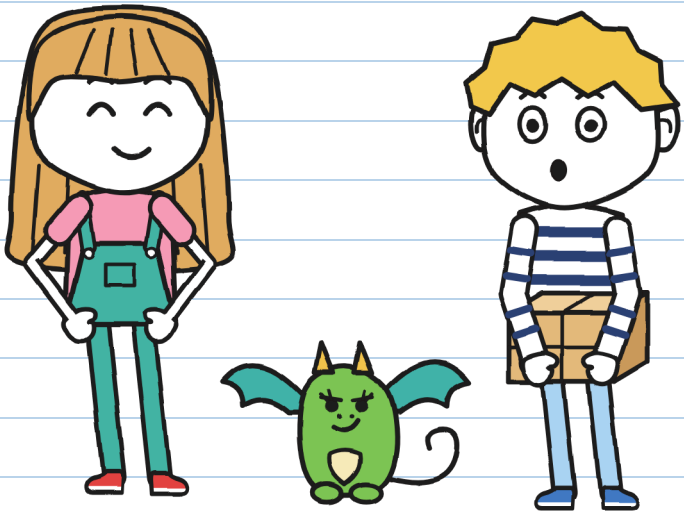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1

이 택배는 문다

Lui Eriksson



(구너의 공책)

사이즈 S
초급 · 7+

불가능 배달 · 1
이 택배는 문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S · 초급 · 7+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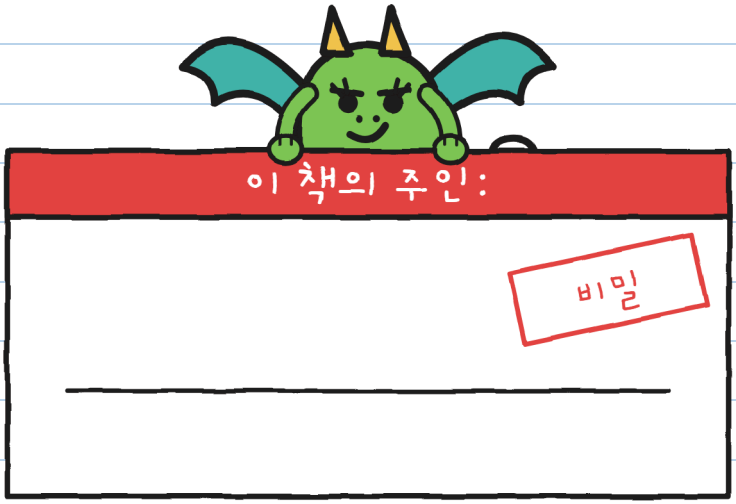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에서 다친 택배는 없다. 거의 없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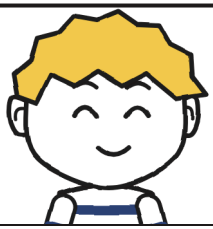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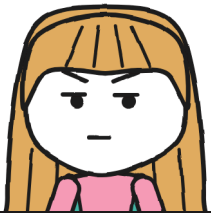
이걸 주웠다면, 해 뜨기 전에 돌려줘.

부스러기는 이야기 속에 살아서 무는 거야. 진짜 동물을 만나면 76쪽을 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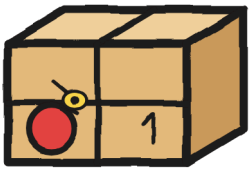
등장인물



구니. 동네에 새로 온 아이.
배달 전문가(대충 그런 셈). 이 공책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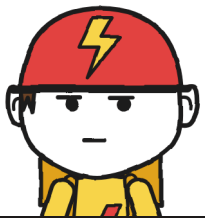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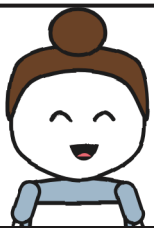
1번 택배. 받는 곳: 용의 집.
요청 사항: 따뜻하게 보관.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규칙은 딱 하나.



토쇼. 번개배송 배달원. 엄청 빠르게 엄청 지루한 걸 배달한다.



엘리아. 빵집 주인.
환기구에서는 오븐의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배달 공책
주인: 구니

비밀.

비밀이니까 내가 먼저 읽을게.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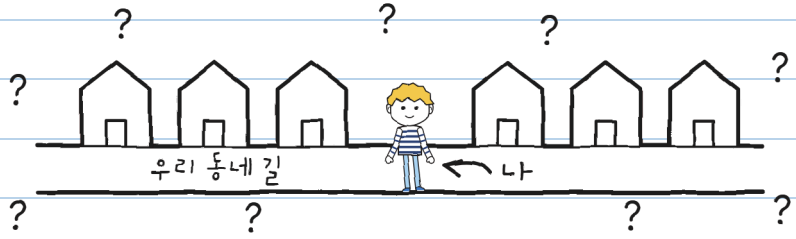


이 공책은 이삿짐 14번 상자에서 나왔다. 상자에는 '부엌'이라고 쓰여 있었다. 숟가락? 하나도 없었다. 있는 건 이 공책과 양말 한 짝, 고무 개구리뿐이다. 개구리는 누구 것도 아니다.

제1장

안 되는 택배

이 동네에 온 지 4일이 됐다. 나는 길 하나를 통째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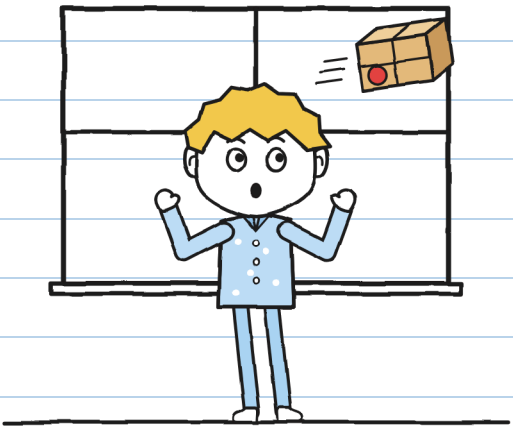


친구를 사귀는 내 계획:

1. 인사하기.
2. 재미있는 말하기.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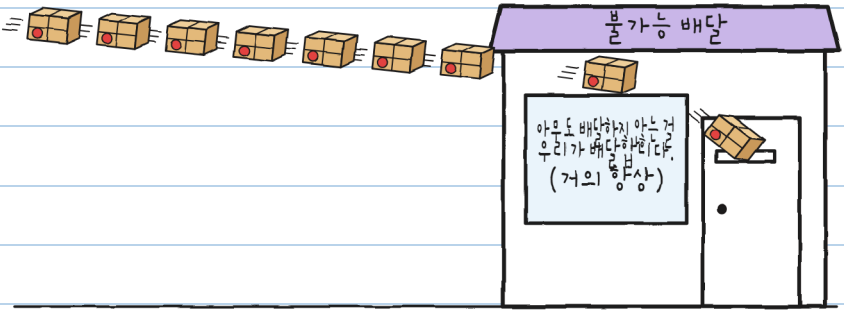
나는 2번에서 멈췄다. 3번은 모르겠다.

오늘 아침, 무언가가 나를 깨웠다. 내 창문 앞을 날아서 지나갔다.



택배였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아홉 개가 오리처럼 줄지어 날아갔다. 길을 건너 맞은편 가게의 우편함으로 쏙 들어갔다. (다른 열한 개는 내가 자는 동안 먼저 돌아왔다. 나중에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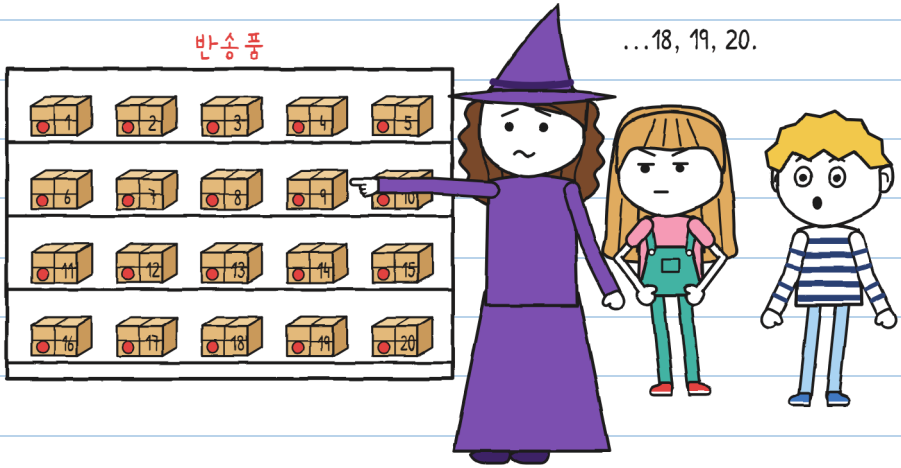


이제 2번에 쓸 말이 생겼다. 날아다니는 택배!

그건 재미없어. 엄청 자주 있는 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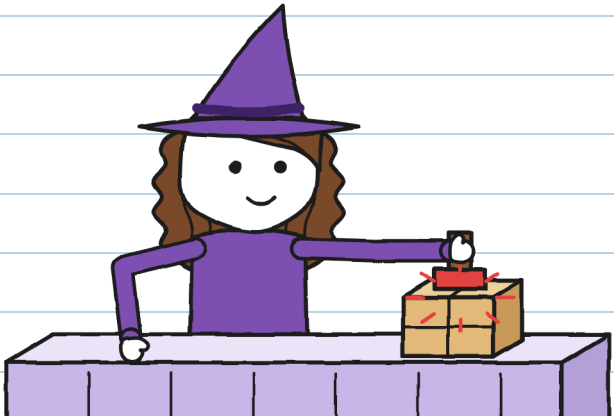
이 메모는 훌리타가 쓴 거다. 오늘 아침 맞은편 가게에서 만났다. 훌리타가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해봤다.

나는 줄무늬 스웨터를 잠옷 위에 입었다. 그리고 길을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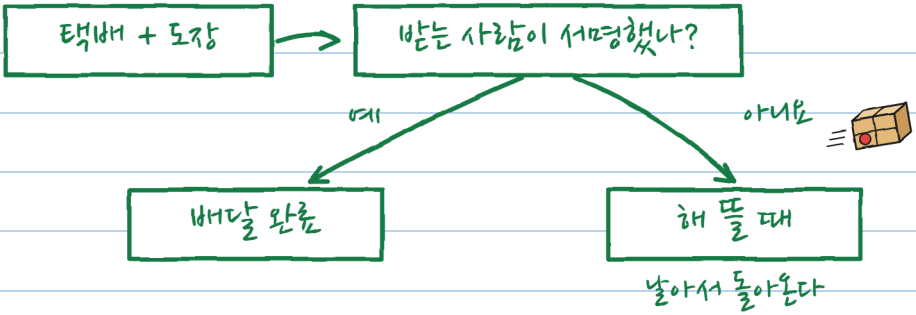


"전부 돌아왔네." 마녀가 말했다. "또."

마녀의 이름은 마라다. 마라는 불가능한 배달을 하는 가게의 주인이다. 택배에 찍는 반짝이는 도장도 하나 있다.



훌리타가 내 공책에 설명해줬다. 허락도 없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

그러면 사라지는 택배는 없어. 배달되는 택배도 없고.

선반에는 돌아온 택배가 스무 개 있다. 아무도 배달하지 못했다. 전부 같은 사람이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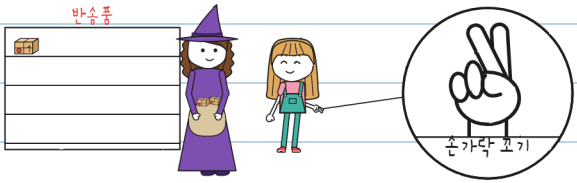
받는 곳: ...
보내는 사람: **R.**

"R.이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글씨 못 쓰는 사람이야." 마라 아줌마는 그 말뿐이었다.

마라 아줌마는 택배 열아홉 개를 자루에 넣었다. 다시 배달해 보려는 것이다. 그날 밤 등대에 피아노도 갖다줄 예정이었다. 해 뜰 때 돌아온다고 했다. 선반에는 하나가 남았다.

"그건 안 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규칙은 딱 하나야. 선반에 손대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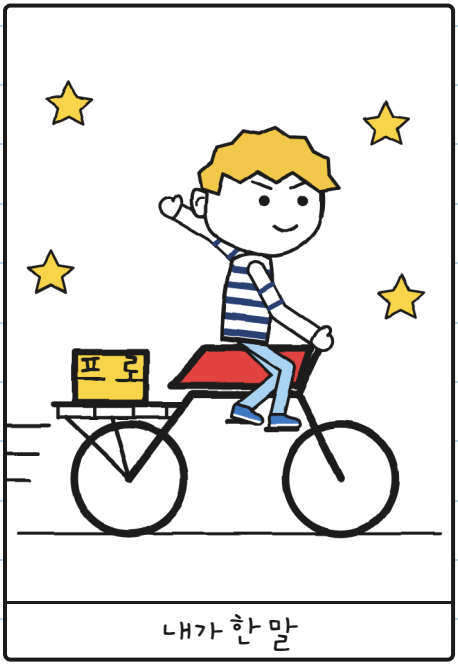
"당연하죠."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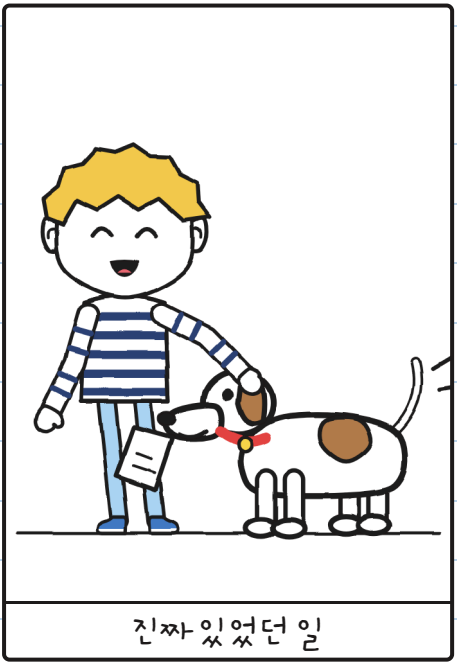
문이 닫혔다. 훌리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배달할 줄 알아?"

그리고 친구를 사귀려고 흔히 하는 말을 했다:

"응. 다른 동네에서는 배달 전문가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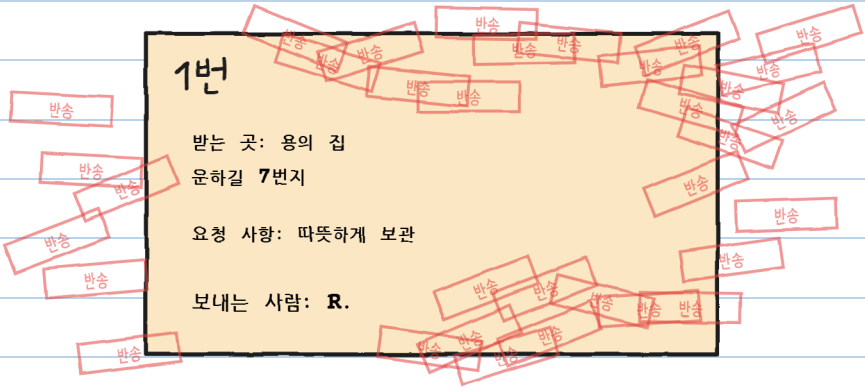
내가 한 말



진짜 있었던 일

강아지 전문가.

훌리타가 마지막 택배를 꺼냈다. 1번 택배, 안 되는 그 택배였다. 훌리타의 손이 떨렸다. 내 손도 떨렸지만 나는 더 잘 숨겼다. 딱 하나 티가 났다. 스웨터를 뒤집어 입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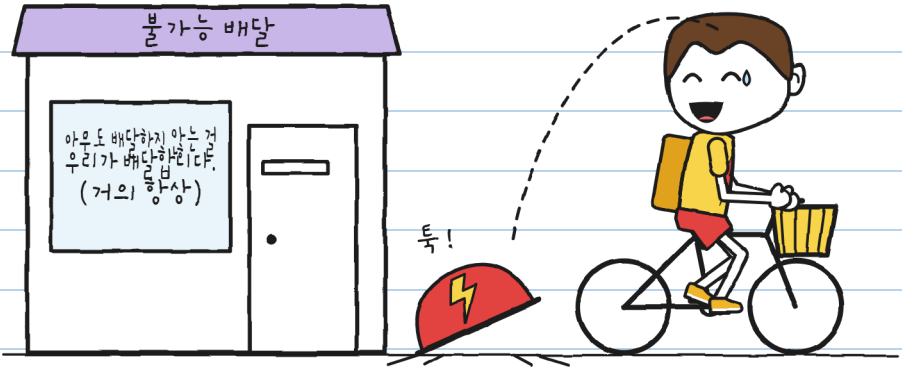


"해 뜨기 전에 이걸 배달하자." 훌리타가 말했다.
"그러면 마라아줌마가 내가 돌아온 택배도 배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안 되면?"
"혼자 돌아오겠지.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좋은 계획 같았다. 그때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따르릉! 가게 유리창 앞에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헬멧을 쓰고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가방에는 '번개배송.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라고 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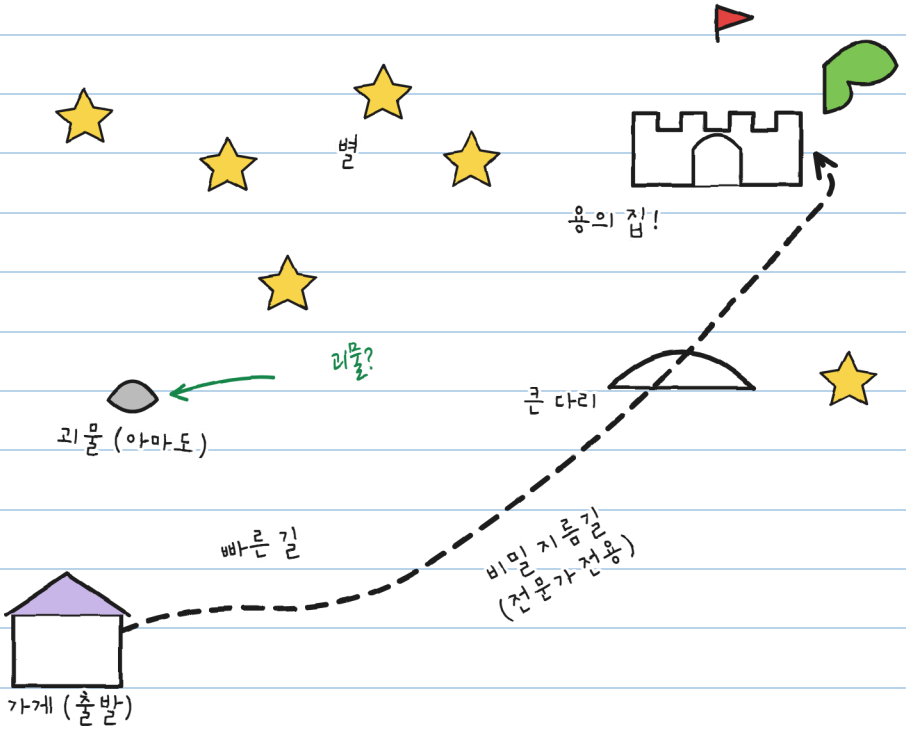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정말 불가능이네!" 남자아이가 말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배달 못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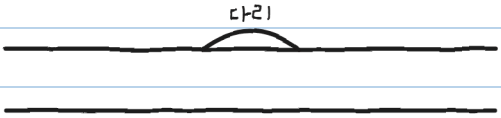
토뇨. 엄청 빠르게 엄청 지루한 걸 배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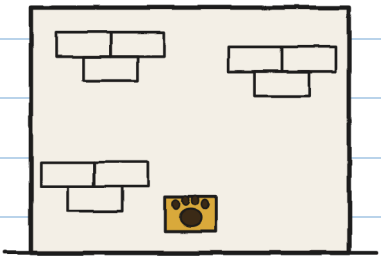
"오늘은 이걸 배달할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가 '용의 집'을 읽었다. 너무 크게 웃어서 헬멧이 떨어졌다.

배달 약도를 그렸다. 전문가는 약도를 그린다.



별은 가는 길에 없다.





운하길 구번지

운하길 구번지는 집이 아니었다. 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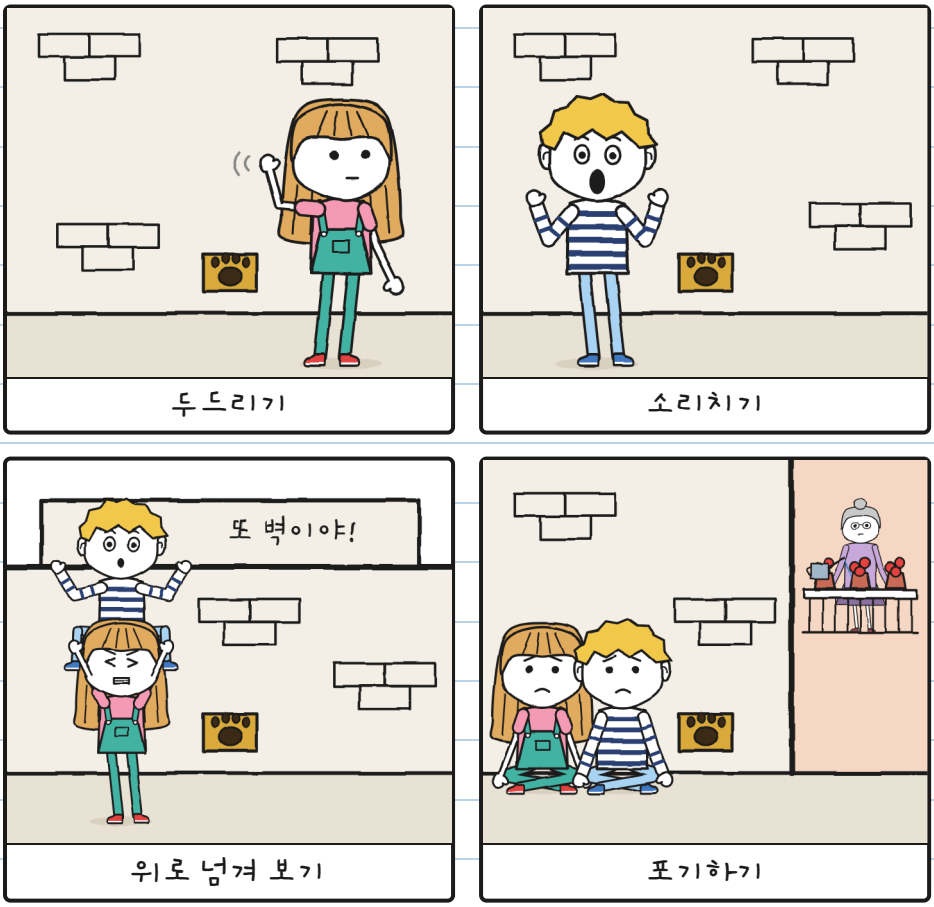
매끈한 벽이었다. 문도 창문도 없었다. 놋쇠판 하나만 있었다.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아주 낮은 곳에 있었고, 모양이 이상한 홈이 파여 있었다.



놋쇠판

"우편함인가?" 내가 말했다. 하지만 택배는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벽에다 온갖 걸 다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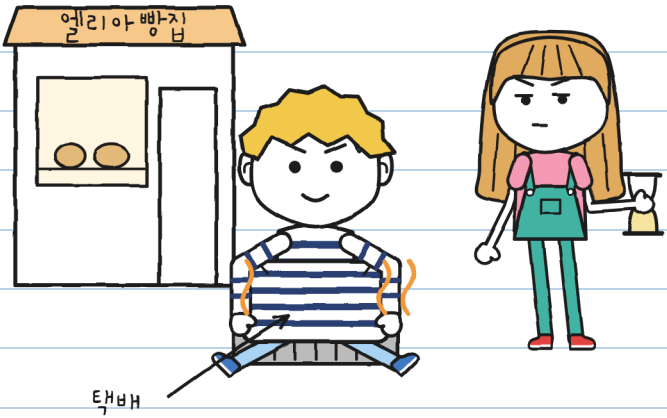
옆집 발코니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라늄에 물을 주며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택배는 몇 년째 여기에 온단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갈 때는 늘 온 모습 그대로 가지."

날씨가 추웠다. 훌리타가 다시 라벨을 읽었다.
"'따뜻하게 보관'이래. 몇 년째 차가운
선반에 있었는데."

나는 새로 왔다. '따뜻하게 보관'이라고 쓰여 있으면
따뜻하게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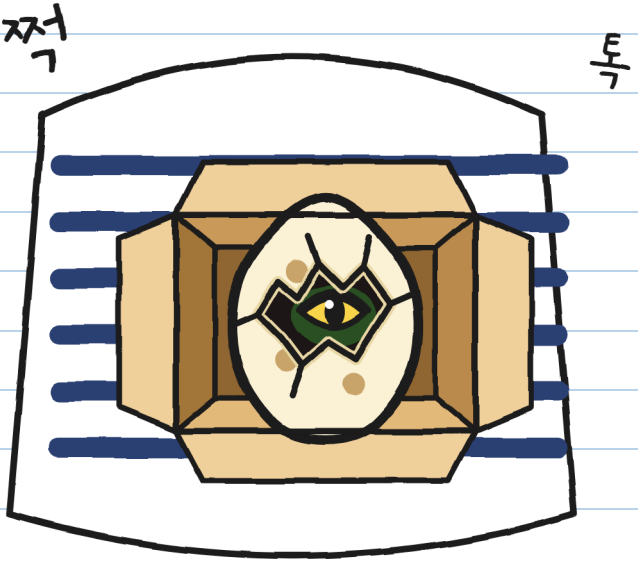
택배를 스웨터 안에 넣었다. 우리는 큰 다리를 다시
건넜다. 엘리아 아줌마네 빵집 환기구에 앉았다.
오븐의 바람이 나오는 곳이다.



너 꼭 아기 배송 우체통 같아.

한참이 지났다. 빵냄새가 났다. 나는 땀이 났다. 그때...
톡! 무언가가 내 배를 쳤다.

"네 배야?" 훌리타가 물었다.
"내 배는 '톡' 소리 같은 건 안 내."



그리고 택배가 나를 쳐다보았다.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에취, 아기 용이 작은 불꽃을 뿜어!

사이즈 XS · A1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사이즈 S · A2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그러자 아기 용이 그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M · B1
나는 평범한 재채기를 했지만,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그러고는 탄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L · B2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그에 비해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그을렸고, 그러고는 태연하게 그 그을린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이야기는 같아. —J.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